

새 책

▶계절 산문(박준 지음)=시인이 그만의 방법으로 그려내는 '기다림'과 '그리움'을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조우하기도 하고 깊은 숲 한가운데 서 있다가 푸른 바다를 마주하기도 할 것이다. 경어체로 쓰인 글들이 눈에 띄는데 누군가에게 꺼내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고, 시인 자신의 내밀한 독백이자 지나온 미래에서 떠올리는 회고로도 보인다. 달. 1만4800원.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인가(리베카 솔닛 지음, 노지영 옮김)=저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라는 점을 꼬집는다. 2017에서 2019년 사이 발표한 칼럼과 에세이 등을 엮은 책으로, 미투운동과 문화계 젠더 문제, 미국 대선과 투표권 억압 문제, 민주주의, 임신중지법 등 시대의 현안을 날카롭게 포착한다. 창비. 1만7000원.

▶꽃다지(구광렬 지음)=울산 태화강 지류인 대곡천 절벽에 그려진 반구대 암각화를 소재로 쓴 장편소설이다. 고래를 신성하게 여겨 고래잡이를 금기시하던 큰어울림가람(태화강) 부족을 중심으로 으름 자리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권력다툼과 애절한 사랑, 마을 사람들의 생존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 등이 펼쳐진다. 새움. 1만4000원.

▶인생이 글러먹은 이들에게(현건우 지음)=저자의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담겼다. 고단한 하루 끝, 싸구려 와인 한 병을 옆에 두고 써내려간 취중진담이다. 낯것의 생각은 꾸밈없는 표현과 함께 이 시대 속 고통받는 청년들과 '글러먹은 삶'을 살고 있는' 기성세대에게도 경종을 울린다. 예지. 1만8000원.

▶좋은 건 다 네 앞에 있어(성전지음)=저자는 살아가면서 바로 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해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해안을 선물한다. 눈앞에 있는 좋고 기쁘고 행복한 수많은 것들도 내가 보지 못하면 내 앞에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 여기에서 사랑하고 감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전한다. 마음의숲. 1만5000원.

▶바이러스란 도대체 무엇인가(미야자와 타카유키 지음, 이정현 옮김)=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막연한 공포로 다가오는 바이러스. 저자는 바이러스란 무엇이며 왜 인간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초스피드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의 의문점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또 레트로 바이러스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도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 예포케. 1만5000원. 오온지기자 ejoh@ihalla.com

진정 중요한 것들은 숨지 않고 우리 곁에

마크 헤이머의 '두더지 잡기'

두더지 사냥꾼으로 보낸 날
자연 예찬 넘어 그리운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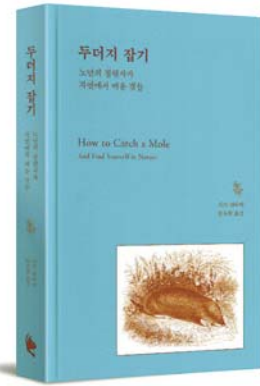
그는 두더지 사냥꾼이었다. 그 일을 시작한 건 돈 때문이었다. 정원 일이 없을 땐 두더지를 잡느라 분주했다. 두 앞발을 더듬으며 평생 굴을 파는 두더지는 땅을 헤집는 탓에 정원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두더지 사냥꾼은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영국에서는 전통적 직업이다. 최근 조사 결과 영국에 등록된 두더지 사냥꾼은 약 300명에 이른다.

'두더지 잡기'는 전직 두더지 사냥꾼이자 정원사인 북잉글랜드 출신의 시인 마크 헤이머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다. '노년의 정원사가 자연에서 배운 것들'이란 부제에서 짐작하듯 헤이머가 60세를 넘긴 나이에 쓴

첫 책으로 자연에 대한 명상적인 시선을 담되 그 매개가 두더지라는 점에서 다른 빛깔을 띤다.

헤이머는 배우자를 만나 정착하기 전까지 오롯이 혼자였다. 열여섯의 나이에 집에서 쫓겨나 다시피 한 그는 2년 가까이 노숙자로 지냈다. 무작정 걷기만 했던 그때의 기억은 그에게 상처와 두려움으로 남아 있고 아직도 그 시절의 악몽을 꾸고 있다. 그럼에도 독담에 기대 하룻밤을 보내며 들었던 거센 빗소리가 "거의 참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동시에 그만큼 참을 수 없이 외롭게 느껴졌다"는 대목에선 고독과 마주하며 생의 신비로움을 발견했던 그의 행로가 그려진다.

저자는 두더지를 잡기 위해 자연 속에서 홀로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공기, 토양, 태양, 비 등 대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가졌다. 그것은 그를 단단하고 건 강하고 평화롭게 이끌었다. 그러나 때로 고립된 삶은 인간들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도록 했다. 두더지를 없애려면 녀석들을 죽이는 수밖에 없었던 점도 그가 두더지 사냥을 그만둔 배경 중 하나다. 그는 말한다. "나는 숨겨진 것들을 찾는 데 지쳤다. 진정 중요한 것들은 실은 모두 저곳에, 그냥 가질 수 있게, 땅 위에 놓여있다. 내가 들고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조각들처럼." 황유원 옮김. 카라칼. 1만7800원. 진선희기자

획적인 연대로 지키고 키운 민중미술 40년

김정현의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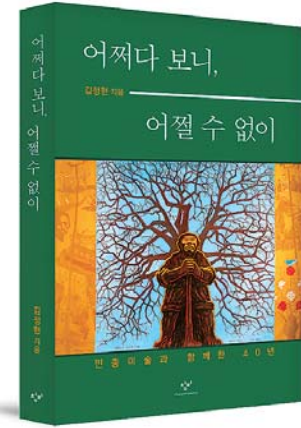
"민중미술"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난 것은 1984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이었다. 어려운 시기에 독재정권을 향해 씌 없이 저항하던 미술에 붙여진 명예로운 이름이다." 40년 가까운 세월 민중미술가로서 지나는 삶을 회고하면서 그는 이런 문장으로 '답'은 글'의 일부를 채웠다. '민중 미술과 함께한 40년'이란 부제를 붙인 김정현의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공부했고 30년 동안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했던 저자는 1980년대 민중미술의 발전을 주도한 '현실과 발언' 동인으로 활동했고 민족미술협회의 대표, 전국민족 미술인연합 공동의장,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엔 소장 작품들을 전국 공공 미술관에 기증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에는 '현실과 발언'의 탄생, 민족미술협회의 결성과 민중미술론, 민미협과 그림마당 민, 광주비엔날레 등 대형 전시회들, '예술과 마을 네트워크' 이야기 등이 들었다. 알고 보면 민중미술의 맥락과 그 원인은 조선시대부터 있어왔다는 저자의 시선은 해방 이후 한국 미술계의 흐름에서 오늘날 민중미술의 미래까지 닿는다.

그는 90년대 초반에 이르러 민중미술의 활력이 급격히 수그러든 점을 짚으며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변화가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저자는 민중



미술이 제기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은 그대로 남는다고 했다. "지금 이곳의 미술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가?" 돌아보면 예술 분야에 한정하지 않은 정치·사회와의 획적인 연대가 민중미술을 지켜내고 키워온 것이라는 그는 "미술인으로서 저항정신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창비. 2만원. 진선희기자

이 책 양학용의 '길은 사라지지 않아'

느리고 부족하지만 낯것이 건넌 위로



'길은 사라지지 않아'에 실린 사진. 아이들은 낯것의 세상과 만나며 자기가 정말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했다.

"현저 음식에 적응할 수 있을까? 가족이 아닌 새로운 친구들과의 긴 여정이구나 불편하진 않을까? 물음표가 많았던 시절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느끼고 또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나는 그때의 기억을 써먹곤 한다. 이는 새로운 도전, 시작을 앞두고 머뭇대는 내 등을 떠미는 힘이 되어준다."

2012년 여름, 그들은 이 땅을 떠나 먼 곳에 있었다. '여행학교'라는 이름으로 14명의 청소년들이 함께한 일정이었다. 당시 열일곱이었던 아이는

그때를 돌아보며 이런 소감을 전했다.

제주에서 일상을 여행처럼, 여행을 일상처럼 살아간다는 세계여행가이자 초등학교사인 양학용의 '길은 사라지지 않아'에 그날들이 담겼다. 한 달 가까이 히말라야 산자락 라다크의 여러 마을과 북인도의 몇몇 도시를 여행하고 성장해나간 이들의 사연이 펼쳐진다.

라다크의 하늘을 높이 푸르고 투명했고 아이들은 그 아래 '오래된 미래'의 마을들을 만났다. 히말라야는 그 마을들과 그곳에서 하루를 매일같이 단순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품고 있었다. 여행학교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라다크의 전통 마을을 통해 느낌과 부족함의 가치를 떠올렸다. 북인도의 오래된 골목길은 문화가 가진 다양성의 힘을 알려줬다. 우리의 삶에 비하자면 모든 것이 느리고 많은 것이 모자란 그곳이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만족감과 해방감을 맛보고 일상에서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들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졌다.

저자는 이 책에 대해 "시계처럼 학교와 학원을 오가던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낯것의 세상과 부딪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는 것'과 '그런 아이들의 반응과 변화를 지켜보며 내가 함께 배운 것'에 대한 이야기"라며 "자기가 정말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본 그 아름다운 시간에 대한 보고서"라고 했다. 별글출판사. 1만5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주)팜그린텍

Farm Green Tech 공기교반기(130W)

특허받은 모터캡 사용으로 모터 2중보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특허받은 바람판 토출구로 인해 사각지대 최소화

Farm Green Tech 천장형환풍기(330W)

특허 제10-2182942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환풍기(800W)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향상
-고풍압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셔터 별도판매
-모터 별도판매

Farm Green Tech 송풍팬(6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13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